

사찰 등 문화재 전문가 故 김대벽 추모전시회

사찰 문화재와 전통 한옥만 40여 년 동안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작가 김대벽(1929~2006). 그를 추모하는 사진전 '한옥의 향기'가 3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씨와 평소 단짝이던 신영훈 한옥문화원장과 사진작가 주명덕씨가 함께 기획했다. 서울

의 종묘, 경복궁 안동의 별산서원, 충남 논산의 운증고택, 충남 예산의 추사김정희고택을 비롯해 전북 부안 내소사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사진들은 그가 남긴 방대한 사진자료 가운데 추려낸 일부분. 그의 전문 분야는 한국의 문화재였다. 그의 발길은 전국에 흩어진 바위, 사찰, 서원, 고궁에 이르고 90년 대부터는 해외로 진출해 중국, 일본, 티베트, 네팔, 인도 등의 문화재들을 찍었다.

이번 전시에 가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장엄한 공간을 구현한 서울의 종묘, 경내 들어가는 입구를 찍은 내소사 등 우리 전통 고건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곳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고인이 사진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61년 옛 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청의 전신)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그는 평소 "좋은 사진은 문화재에 대한 감동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고건축물의 촬영 각도를 모색하기 위해 주변건물을 해마다 비바람 때문에 촬영 기회를 놓쳐 버린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값지지만 그가 남긴 열정의 흔적은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02)733-8945 김주일 기자

3월 5일까지 아트선재센터서 50여점 선 보



구례 '운조루'

2월 이색전시

구슬이 꽃과 나비가 되어

구슬공예작품 300여 점 선보여



'구슬도 꿰어야 서랍이다' 그 서랍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국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 2월 26~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1층 찻집

'나무' 로비에서 여는 '김인숙 구슬공예 특별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김 원장이 영국출신 티베트 여성수행자인 덴진빠도 스님이 설립한 인도 여성수행자 승원 동규가찰링을 후원하고 불교여성개발원 목적사업예산 지원을 위해 기획했다.

김 원장은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작품세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구슬 300여 점을 선보인다. 김 원장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인 준갈동품과 비취·산호·진주 등을 이용해 제작한 한국의 멋,

불교적 세계관이 깃든 브로치·목걸이·귀걸이 등의 장신구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회 수익금을 전통문화발전기금으로 기부해온 천한봉 명장의 딸인 천경희 도예가의 작품 10여점과 정신지체 직업수련원인 천마재활원 '천마 도예의 숲' 황소인 원장을

비롯한 근모장에 인물이 함께 만든 작품

30여점도 보너스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불교계 여성들을 위해 뜻 있는 전시회를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황상 불교여성개발원을 통해 여성 불자들이 세계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성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올 4월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텍사스와 뉴욕에서도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02)722-2101 김강진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28마력



산약(山藥)으로도 불리는 마는 어지러움과 두통, 진정, 체력보강, 담 제거 등 한방에서 알려진 효능만도 10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예로부터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마는 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하는데 전국적으로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는 구워서도 먹지만 날 것을 가늘게 썰거나 갈아서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찜 말려 가루를 내 먹기도 합니다.

마에 함유된 호소는 열에 약하므로 생즙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를 갈아먹기보다 사과, 당근 등을 함께 넣어 먹으면 먹기가 수월합니다.

마는 자양강장에 특별한 효험이 있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당뇨병, 기침, 폐질환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강해 원기가 쇠약한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력 재료: 마, 잣, 검은깨, 벌꿀

만드는 법

- 1 마는 칼끝으로 살살 긁어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후 시루에 푹 무르게 찐다.
- 2 잣은 곱게 다지고 검은깨는 씻어서 살짝 볶아둔다.
- 3 푹 무르게 찐 마를 도톰하고 등글게 썬다.
- 4 등글게 썬 마에 벌꿀을 바른 다음 잣가루와 검은깨를 곱고로 무쳐낸다.

사물놀이 탄생 30주년 기념공연

3월 6·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서

한국인이려면 흥겨운 우리 가락 사물놀이 TV나 공연장에서 한 번쯤 접해 봤을 것이다. 이 사물놀이는 농악에서 연유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물놀이라는 음악패가 있던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8년 4명의 놀이패 출신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사라져가는 우리 가락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재창조한 퓨전음악이다.

이러한 사물놀이는 농악을 원형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전국을 돌며 지방 특색의 가락을 정리하는 한편 무속가락 또한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음악적 소재를 모두 취합하여 만든 음악이었다.



당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패를 결성한 이들은 김덕수(56·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교수), 이광수(56·대불대 전통연희학과장), 최종실(54·중앙대 교수), 그리고 1986년 작고한 김용배다. 이들이 사물놀이 탄생 30주

년을 맞아 다시 뭉쳤다. 단 김용배씨를 대신해 남기문(50·국립국악원 민속단 지도위원)씨가 참여한다.

30년전 사물놀이 음악을 만들어낸 4명의 젊은 국악인들은 어느새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모습이지만, 그들의 음악성은 어느 젊은 음악가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변모했다. 공연은 3월 6·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사물놀이 탄생 30주년 기념공연'을 한다

김덕수 교수는 "숨쉬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작은 공간에서 우리 음악 재건 운동이 시작됐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세계 문화 시장에서 우리의 장단이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신명을 한층 더 승격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며 이번 공연은 그것의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77-5266 김주일 기자

건축가 김석환 드로잉전

2월 29일까지 영풍문고서

건축가 김석환이 사찰, 서원, 고궁 등 전통 건축물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먹이나 펜, 연필로 그린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이는 '한국 전통건축 드로잉전'이 2월 29일까지 영풍문고 종로본점내 북갤러리에서 열린다.

김석환은 자신의 드로잉에 대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한게 아니라 대상과 교감한 것을 기록하는 행위로, 의미있게 여겨진 건축적인 감각을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011)9929-3360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기열 107호 代表 최우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아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사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격: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불교서점

금강禪院·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입상실습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사 드디어 대공개!